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서울신학대학교기념주일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입니다. 사중복음(중생·성결·신유·재림)의 진리와 인격과 영성을 갖춘 훌륭한 목회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4년 4월 10일(수)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서는 좋은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일꾼 선출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사순절 경건 예배 일정

사 순 절 : 2월 14일(수)~3월 30일(토) - 새벽 경건 훈련
 종 려 주 일 : 3월 24일(주일)
 고 난 주 간 : 3월 25일(월)~3월 30일(토) / 특별새벽기도회
 성화 목요일 : 3월 28일(목) - 세축식
 성화 금요일 : 3월 29일(금) - 예수 수난 영화 감상
 성화 토요일 : 3월 30일(토) - 달걀 포장 및 부활절 전도
 부활 감사절 : 3월 31일(주일) - 세례식

5. 성도 동정

이현미 성도님의 외손주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리아, 2024.03.06)

6. 2024년 3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1.21 ~ 2.22)

3/2(토)-김주하 어린이

행사 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3/10	사순절 4주 / 태신자작정(4주) 서울신학대학교 기념 주일
03/17	사순절 5주 / 태신자만남주간(1)
03/19	경기서지방회 교역자 기도회 대신교회(오전 11시)
03/24	종려주일 / 태신자만남주간(2)
24-30	고난주간 / 성결교회전도주간
03/28	성목요일 (세축식)
03/29	성금요일 (예수 수난 영화 감상)
03/30	성토요일 (달걀 포장 및 전도)
03/31	부활절 감사주일 (성찬예식)
04/01	찾날맞이 월삭예배
04/07	총회 북한선교대회 (온샘교회)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썬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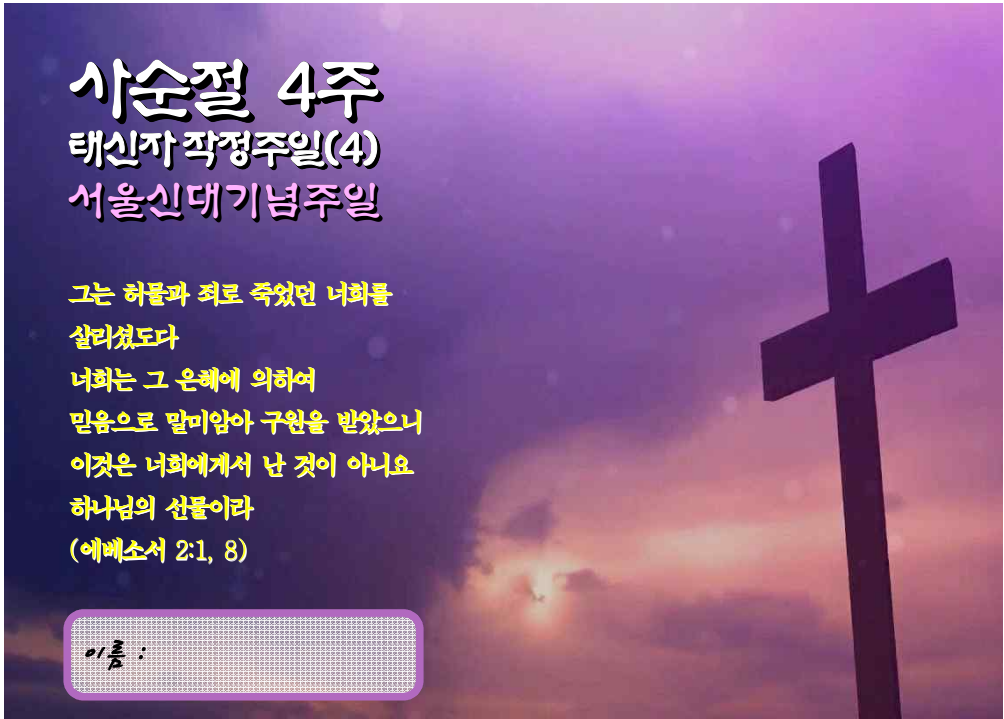


- 03/10 박제연 집사
- 03/17 이광근 안주사
- 03/24 임명자 집사
- 03/31 임명숙 집사
- 04/07 김혜숙 권사
- 04/17 정애자 권사
- 04/21 이광근 안주사
- 04/28 이가을 권찰
- 05/05 박제연 집사



주사랑 7권 10호
 창립 2017.11.25
 기 특 교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2024년 3월 1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사랑교회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이름: _____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율동: 아하바 한은총
 피 아 노: 문제효 임명순
 드 럼: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한성결
 대표기도: 박제연 집 사 (다음주: 이광근 안주사)
 헌금위원: 이재아 어린이 (다음주: 한은총 어린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a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사순절 4주 / 서울신대기념주일) 인도: 집례자

※ 목도 시편 107:1~3 다 같이
 ※ 찬송가 찬 32장 다 같이
 (만유의 주재)

※ 사도신경 다 같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이

성서교독 No.127 사순절 (4) 다 같이

찬송가 찬 287장 다 같이

(예수 앞에 나오면)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성경봉독 요한복음 3:14-21 (신 146) 박제연 집사

광고 인도자

말씀인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이
 (헌금위월 : 이재아 어린이)

※ 축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십일조 :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재순 박제연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김혜숙 김화자 박재순 이광근(진급, 심방, 자녀) 전복순(사별) 한승훈 임명순
 월삭감사 : 박제연 이광근 이재우 재희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한승훈 임명순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차량헌금 : 나승원 정영미 건축헌금 : 한승훈 임명순
 선교헌금 : 문동진 임명자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후원헌금 : 김은채 김미린 김호 박미린 장지은 독지교회 조은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오후 1:00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육부장
 경배찬양 다 함께
 성경봉독 **출애굽기 19:1-6 (구 110)**
 말씀제목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말씀인도 박제연 집사

통일 선교 비전 기도회

오후 1:30 **경배와 찬양** 아비향향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10:23-31 (신 71)**
 말씀제목 **주님을 따르는 자가 다면**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민수기 21:4-9 (구 231)**
 말씀제목 **눅뎌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2:1-10 (신 311)**
 말씀제목 **죄에 빠졌던 우리를 살리셨다**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10일일 막 10:23-31 **관교와 창가리살**
 11일월 막 10:32-45 **재가 해아할 영영**
 12일화 막 10:46-52 **빛으로 거듭나 합다**
 13일수 막 11:1-11 **순종 좇을 찬희 나라**
 14일목 막 11:12-26 **향한 열매 맺어**
 15일금 막 12:1-12 **끝지 재로 남의 양여**
 16일토 막 12:13-27 **자기 자신을 먼저 잡합다**
 17일일 막 12:28-34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정목사(예성)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소)  아유제비자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성경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베드로 선교사 사 랑 선교사 모로코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우 임주 타지키스탄 인터넷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헌종 북한선교장학수립 북한성경교회개척 북한이탈주민 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 ⑨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 인물은 (삿 11:34~35)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고 내 ()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 ⑩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입다에게 찾아와 시비를 걸자 길르앗 족속과 큰 전쟁을 치름으로 42,000명을 죽게 만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이들은? (삿 12:1)
 ()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 ⑪ 단 지파의 사람 마노아의 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사이며,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은 사람”으로 불린 인물과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삿 13:24~25)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대 그의 이름을 ()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 ⑫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마노아 가정에 이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 (삿 13:4-5)
 그러므로 너는 삼가 ()를 마시지 말며 어떤 ()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됴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 ⑬ 삼손이 담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딸들 중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숨겨진 이유는?(삿 14: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은 알지 못하였더라
- ⑭ 삼손이 담나의 청년 30명에게 냈던 수수께끼는 삼손의 결혼식을 앞두고 벌어진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14:14)는 삼손과 관련된 한 사건을 풍유한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삿 14:6~8)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의 주검을 본즉 ()의 몸에 ()와 ()이 있는지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기드온이 몰락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가 되니라
- ② **기드온의 첩의 아들 70명 중 하나로 권모술수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도전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언한 자녀 중 한 사람은?** (삿 9:16~17)
사람들이 ()에게 그 일을 알리매 ()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 ③ **아비멜렉의 폭정 이후 사사로 선택 받은 잇사갈 사람은?** (삿 10:1~2)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 되었더라
- ④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아들 30명과 30성읍을 다스렸던 사사는?** (삿 10: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 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것을 보류하셨던 이유는?** (삿 10:13~14)
너희가 ()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 ⑥ **회개와 결단으로 삶을 개혁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삿 10:15~16)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 .
- ⑦ **기생의 출생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당하고 버림 받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은 사사는 ?** (삿 11:1~2)
길르앗 사람 ()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 ⑧ **입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이기는 했지만, 과거의 잘못된 이방 신앙생활 습관을 청산하지 못해 하나님께 범죄한 서원 내용은?** (삿 11:30~31)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향기로운 삶 : 늦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둘러 먼 길로 돌아가는 오랜 행진으로 인해 지쳤습니다. 백성들은 피곤한 육체와 지친 마음 때문인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넉넉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도 없다'는 식으로 불평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실망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 은혜의 떡인 '만나'조차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살리십니다. 오랜 광야 길에 지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 많은 사람을 물거나 쏘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 물과 양식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갖 기이한 기적과 이상으로 보호해 오셨습니다.(신 8:15)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불뱀 심판을 사용하여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살리십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독사들의 공격 앞에서 바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7절)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며 불평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용서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뱀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통해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보고서 하찮은 식물이라며 싫어했고, 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늦뱀을 쳐다볼 때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입니다.

늦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 3:14~15)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늦뱀처럼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387장.....	다	같	이
대표기도.....	구	역	장
성경봉독..... 열왕기상 2: 13~25 (구 258).....	말	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			
삶의 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401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아는 다윗의 시중을 들던 수넬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17).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찾아가 솔로몬의 허락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왕권 사회에서는 ‘왕의 아내나 후궁을 탐내는 행위’는 ‘왕권을 넘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한 적이 있었습니다(삼하 16:20~23). 또한 선대왕이 죽으면 후대왕은 선대왕의 규방을 후대왕의 수하에 맡겨 보호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려한 행동은 솔로몬에게 왕위 찬탈의 의도를 위해 세력을 키워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25).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밧세바는 솔로몬의 허락을 요구합니다. 대노한 솔로몬은 이것을 왕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인간의 정치적 야망과 계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솔로몬의 견고한 나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 주십니다(삼하 7:12~13).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1. 아도니아의 불순하고 어리석은 부탁을 분별해야 합니다(13~18).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악한 고리인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 청탁합니다. 다윗의 품에 있던 수넬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도록 솔로몬에게 말해 달라 부탁입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다윗의 첩을 얻음으로 다윗 왕조와의 모종의 연결을 도모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반란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자신의 몫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밧세바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선왕의 첩을 취함으로 자신의 왕권 찬탈의 기회를 잡으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야망을 숨긴 채 ‘평화(살롬)’의 얼굴을 한 채 밧세바를 미혹했던 것이지요. 과거도 지금도 사탄은 <달콤한 미소 속의 거짓된 평화>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고후 11:14).

2. 밧세바의 순진하고 부분별한 청탁을 분별해야 합니다(19~21).

밧세바는 솔로몬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백성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자신에게 왔어야 할 왕권이 솔로몬에게 갔다는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다윗의 첩을 달라는 그의 요구를 ‘작은 일’로 여깁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를 정적으로 삼고 대치하는 것보다,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어 아들 솔로몬과 화해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인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전만해도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는 지혜롭게 반응했지만, 아도니아의 간교한 술책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의 분별없는 온정적인 태도는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그럽고 정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별없는 온정주의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비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관대한 것도 해롭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롬 16:18).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롬 16:19).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분별해야 합니다(롬 16:20).

3. 솔로몬의 단호한 거절과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21~25).

밧세바의 요구에 솔로몬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얼마나 큰 자비를 덧입고 있었는지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은 ‘아쉬움에 대한 자기집착’입니다. 왕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어머니의 부탁이라고 해도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반역자 요압을 용서해달라는 부탁과 동일한 것이라고 밧세바를 질타합니다. 더 나아가 브나야를 통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사형 판결을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것이 단지 정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신 24:2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견디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결론

올바른 지각과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를 가진 조직은 불행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지혜로운 분별력’과 ‘과감한 결단력’과 ‘명확한 수행력’입니다. 2024년 4월 10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보시기에 겸손하고 옳은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